

BOX 1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수출 특징 및 향후 전망

우리나라 수출에서 아세안5 지역이 중요해진 배경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⁶¹⁾ 수출은 2010년 이후 여타 수출대상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동 지역이 2023년 우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⁶²⁾로 높아졌으며, 對아세안5 무역수지 흑자규모 역시 2019년 이후⁶³⁾ 對중 흑자규모를 크게 넘어섰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서도 동 경제권역에 대한 투자(2023년 기준)가 對미 투자에 이어 두 번째⁶⁴⁾로 높아지는 등 아세안5 지역은 우리 교역에서 그 위상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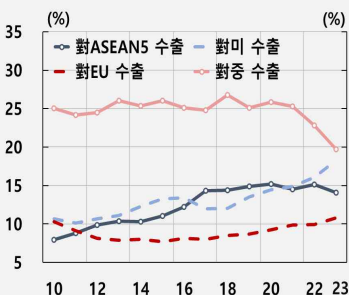
아세안5 지역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미국·일본 등의 주요국 기업들에게도 국외 생산 거점이자 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①2010년 이후부터 중국의 생산비용 급증⁶⁵⁾ 등으로 생산거점을 아세안5 지역으로 꾸준히 이전해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②미·중 무역갈등 등 지경학적 분절화의 영향으로 이들 기업에게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China+1}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③아세안5 지역이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높다는 점도 다국적 기업이 아세안5 지역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중·일의 아세안5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및 소비재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교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對아세안5 수출의 특징과 향후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 對아세안5 수출비중 꾸준히 확대

우리 對아세안5 무역흑자는 對중적자를 완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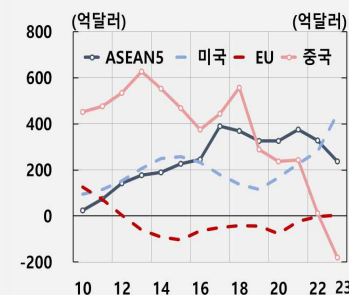
최근 미·중·일 등 주요국들의 對아세안5 FDI 확대

[그림 1]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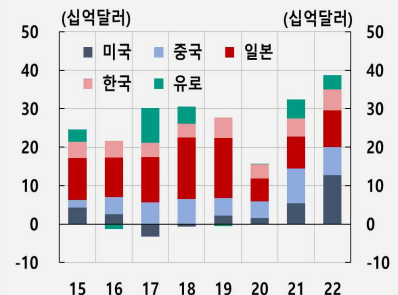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그림 2] 국가별 무역수지



자료: 관세청

[그림 3] 주요국의 對아세안5 FDI



자료: ASEAN Secretariat Stat. 조사국 시산

- 61) 전체 ASEAN 10개국중 우리나라와 수출비중이 높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의미한다.
- 62) 개별국가 기준으로 아세안5 국가들중 베트남은 우리 총수출에서 8.5%를 차지하여 중국(19.7%), 미국(18.3%)에 이어 우리의 제 3위 수출국이다.
- 63) 2023년에는 대미 수출이 자동차, 기계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대미 무역흑자가 445억달러로 對아세안5 흑자규모(236억달러)를 상회하였다.
- 64) FDI(outward)기준으로 2022년까지는 중국으로의 비중이 아세안5지역으로의 비중보다 높았으나, 2023년 현재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2위) 제외).
- 65) 2022년 기준 중국의 월 최저임금은 286달러 수준인 반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는 각각 상대적으로 낮은 167달러, 180달러 수준이다(ILO).

우리의 對아세안5 수출 특징

[① 높은 중간재 비중, 낮은 소비재 비중] 아세안5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서 주로 한·중·일 등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⁶⁶⁾하여 가공 후 미국·EU 등 선진국으로 최종재를 수출하거나 중국 등 인접 국가로 다시 중간재를 수출⁶⁷⁾하는 생산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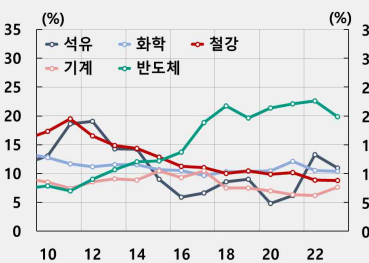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수출 역시 현지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비재 비중은 아직 매우 낮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우리의 對아세안5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고 석유제품·화학품 등 여타 중간재 비중도 6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⁶⁸⁾와도 유사하다. 반면에 식품, 의복 등 최종재는 5%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의 對아세안5 총수출중 60%는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타 4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각각 10% 수준이다. 對베트남 수출의 경우에도 반도체가 24%를 차지하고 소비재 비중은 4%로 매우 낮다. 이같은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는 우리 기업들의 對아세안5 투자가 현지시장 진출^{horizontal FDI} 목적보다는 생산비용 우위에 기반한 수직적 생산분업^{vertical FDI}의 성격이 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우리의 對아세안5 직접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對아세안5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위주

우리 對아세안5 수출은 주로 베트남·반도체 중심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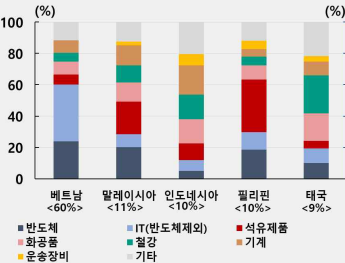
우리 對아세안5지역 FDI도 주로 IT산업, 석유화학 중심

[그림 4] 우리 對아세안5 수출 품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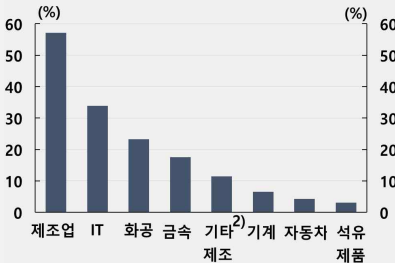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그림 5] 우리 對아세안5 국가별 품목별 수출 비중¹⁾



주: 1) 23년 기준, < >안은 아세안5중 수출비중
자료: 관세청

[그림 6] 우리의 對아세안5 FDI 산업별 비중¹⁾



주: 1) 22~23년 평균, 개별산업은 제조업내 비중
2) 식료품, 의복, 고무, 가죽제품 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②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산업생산에 크게 좌우] 우리의 對아세안5 수출은 미국과 중국이 자국내 소비와 생산을 목적으로 아세안5로부터 수입하는 수요에 크게 영향받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 소비의 영향이 크게 확대되었다. 먼저 아세안5 국가들의 수출구조를 보면, 對미 수출에서는 식료품, 의복 등 소비재 비중이 높은 반면 對중 수출은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등 중간재 비중이 높다.

66) 2022년 아세안5 전체 수입에서 한·중·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42.2%이며, 이들 3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상당부분이 중간재(국별 총수입중 중간재 비중 : 중 66.6%, 한 89.0%, 일 75.9%)이다.

67) 2022년 아세안5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17.1%), 중국(15.7%), EU(10.4%) 등이며 미국과 EU로 수출은 최종재가 절반 이상(국별 총수출중 최종재 비중 : 미 64.3%, EU 51.4%)을 차지하지만 對중국 수출은 중간재 비중(70.5%)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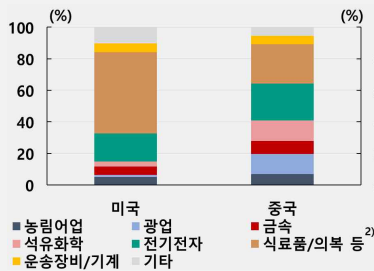
68) 2023년 우리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83.7%이며, 최종재 비중은 14.6%이다.

따라서 아세안5로 수출된 우리 중간재는 역내에서 가공을 거친 후 주로 미국의 최종 소비 용도로 수출되거나 중국내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의 용도로 수출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소비지출 또는 중국의 산업생산과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수출은 아세안5내 생산을 통해 연결되어 상관관계가 높으며⁶⁹⁾, 특히 미국 소비와의 연계성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최종귀착지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對아세안 수출은 다음과 같은 직접경로와 간접경로를 통해 유발된다. 먼저 아세안5 국가들이 해당 지역내에서 나타난 수요(소비·투자)를 충족하기 위해 중간재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우리의 對아세안 중간재 수출은 해당 지역내에 최종 귀착^{직접경로}된다. 이와 달리 미국·중국 등에서 발생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세안5 국가들이 중간재를 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경우 우리의 對아세안 수출은 여타 지역으로 최종 귀착^{간접경로}된다.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의 對아세안5 중간재 수출중 약 절반은 아세안5 국가들의 소비와 투자로 인해 유발된 생산^{직접경로}에 사용되었다. 나머지 절반은 아세안5 역외 국가들의 소비와 투자에 의해 유발되어 아세안5 지역에서 생산공정을 거쳐 수출^{간접경로}되었는데, 역외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11%)과 중국(9%)으로 귀착된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직·간접 경로의 크기를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되기 전과 비교해 보면, 2022년 우리 對아세안5 중간재 수출중 아세안5 역내를 최종 귀착지로 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7.7%p 축소된 반면 미국·EU와 중국을 귀착지로 하는 비중은 각각 5.6%p 및 4.6%p 확대되었다.

아세안5의 對미 수출은 최종재, 우리 對아세안5 수출은 미국 및 중국의 수입수요와 높은 연계성, 우리 對아세안5 중간재 수출의 미·중 최종귀착지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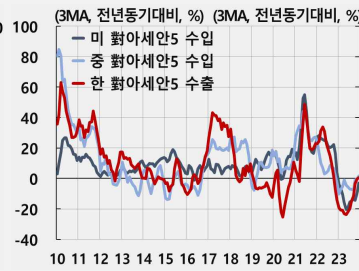
[그림 7] 아세안5의 對미·중 수출 품목별 비중¹⁾



주: 1) 5년(2018~2022) 평균
2) 가죽·고무·플라스틱 제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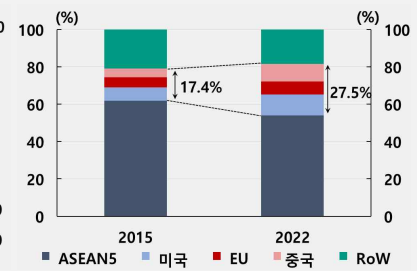
자료: ADB MRIO

[그림 8] 우리 對아세안5 수출과 미·중의 對아세안5 수입



자료: 무역협회

[그림 9] 우리 對아세안5 중간재 수출 최종귀착지



자료: ADB MRIO, 조사국 시산

전망 및 시사점

우리 對아세안5 수출은 22.4/4분기 이후 글로벌 IT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지난해 3/4분기부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수출은 IT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 경제성장세, 주요 신흥국으로의 투자 확대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아세안5의 경기회복에 따른 직접경로뿐 아니라 미국의 양호한 경기흐름과 유럽의 소비회복에 따른 간접경로도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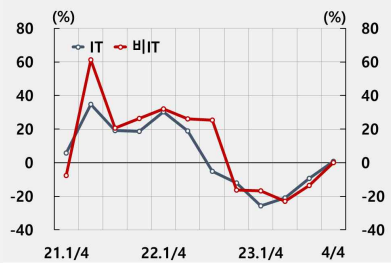
다만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아세안5의 글로벌 생산거점 기능이 갈수록 공고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역내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아세안5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017년 이후 다소 하락하였으며, 우리 기업들이 여타 신흥국에 비해 우위를 보이는 고위기술 중간재⁷⁰⁾의 점유율도 상승세를 멈추고 정체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용절감 등을 위해 아세안5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의 무역규제 회피를 위해 베트남·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수출⁷¹⁾을 늘리고 있는 점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 **중간재뿐만 아니라 전기차·배터리 등 소비재 부문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자동차·배터리(전기차) 공장 착공 등을 통해 현지생산 및 역내판매 증대를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폰 공장 준공(OPPO, 인도네시아), 차량용반도체 공장 건설(SONY, 태국) 등 아세안 지역의 풍부한 소비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늘어나가고 있다.

최근 對아세안5 수출은 IT와 비IT 모두에서 부진이 완화

아세안5내 우리 수출품 시장점유율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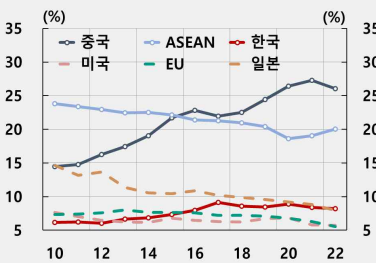
고급 중간재의 수입시장 점유율도 정체

[그림 10] 최근 對아세안5 수출 증가율



자료: 관세청

[그림 11] 아세안 수입시장의 국가별 비중 추이



주: 1) 아세안은 역내 10개국 모두에 대한 수입 비중

자료: UN Comtrade

[그림 12] 아세안5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 중 한국 수출 비중



주: 1) 아세안5의 고위 기술 중간재 수입에서 우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OECD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간 중국시장을 생산기지로 삼아 중간재 중심의 對중국 수출구조를 성공적으로 활용해 온 반면, 내수시장 안착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대부터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고 내수중심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은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對아세안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기지로써의 활용 측면에서 우리 주력 중간재의 질적 고도화에 힘쓰는 한편, 아세안의 인구 및 소비시장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양질의 소비재 수출 증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9)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수출과 미국 소비지출·중국 산업생산과의 상관관계

	2010~2015년	2016~2023년		2010~2015년	2016~2023년
미국 소비지출	0.15	0.51	중국 산업생산	0.81	0.54

70) 우주,항공, 전자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정보통신 등의 제품이 해당된다(OECD).

71) 신현승 외 (BIS, 2023)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귀착되는 공급자-소비자간 길이가 아시아지역을 통해서 늘어나면서 공급망이 아시아지역으로 집중되는 패턴이 있음을 기업데이터를 통해 보였다.